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2년 10월 23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4장 1-12절

설교제목 :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다루는 본문의 핵심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우선 아디아포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직접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영화구경을 하거나 록 음악을 듣는 것’, ‘삼계탕을 먹는데, 냄새제거를 위해 인삼주를 넣는 것이나, 혹은 요리하기 위해 포도주 혹은 약간의 술을 사용하는 것’, ‘명절날 가족과 함께 점 100원 고스톱을 치거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근거하면 로마 교회는 5-7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가진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5년 뒤에 클라우디오가 죽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서로 비난하게 되고, 더불어 자유인들이 어떻게 노예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갈등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2-4절) 따라서, 그 결과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참과 거짓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떤 답을 줍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롬14:14, 20, 참고 고전8:8)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우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롬14:5)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문제를 숙고해 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롬14:22의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과 같은데, 이 말씀 역시 자기 스스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스스로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을 깨뜨린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롬14:14, 고전8:7) 바울의 주장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가 아니기에 각자의 자유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디아포라에 대한 행동의 규범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롬14:6-8, 고전10:31)

세 번째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함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혹은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롬14:13, 15, 19 / 참고 고전10:23, 고전10:33) 한국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는 절대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면 자신의 제한하는 자유함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롬14:20-21, 고전8:9, 고전8:13) 바울의 논지는 만일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형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10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란 상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각자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12절)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그 비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비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올바른 비판과 책망은 정당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올바른 비판을 금지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차이와 다름을 서로 비판하여 서로에게 상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은 잘못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유연함으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 설명해 봅시다.(롬14:2-4)
- 2) 아디아포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네 가지로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